

독일문화원 도서관
도서관탐방

우리와 닮은 독일을 체험할 수 있는 독일문화원 그리고 도서관

우리와의 동질성

남산 길을 지나가다 여러 번 스쳤지만 실제 그곳, 독일문화원에 들어가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동안은 우리나라 도서관들만 취재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독일문화원 도서관. 처음 방문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좀 낯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2003년 베를린에서 열린 WLIC, 2005년 독일에서의 한국의 해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우리나라의 주빈국 행사, 그리고 올해는 독일 월드컵까지... 최근 독일과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독일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멀리 느껴졌을까? 하긴 역사 깊은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이 독일문화원과 지근거리에 있다. 역시 가깝고 먼 느낌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인가 보다. 이제라도 독일문화원을 방문하고 독일과 독일 문화, 도서관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방문 길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독일문화원에 첫 발 들여놓기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기에 독일문화원 내부를 좀 구경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입구에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서와 마주쳤다. 일단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약속시간에 들르겠노라고 한 뒤 독



〈독일문화원 전경〉

일문화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카페테리아에서 잠깐의 휴식을 가졌다.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앉아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독일어 강좌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온 이용자들 다양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독일문화원장과 도서관장을 만나다



〈독일문화원장실에서의 대화〉

잠깐의 휴식 뒤 도서관으로 향했다. 바바라 리허터 도서관장과 이인구 사서, 통역을 해주실 조수경 선생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인사를 나눈 후 도서관장님

은 문화원장님을 소개해 주셨다. 유르겐 카일 독일문화원장님께서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카일 원장께서는 아주 열정이 가득해 대화 내내 흥겨움과 열정이 넘쳐났다. 원장실에서 잠깐이나마 독일문화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여쭙보기로 했다.

평양고체정보센터와의 간접적인 만남

역시나 제일 관심사는 2004년에 오픈 한 평양고체정보센터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평양고체정보센터의 사서가 독일에서 연수를 하고 있으며, 3월 18일 문화원장님과 관장님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신다. 올 5월에는 인민대학습당과 사서교육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카일 원장은 평양고체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 정보교환에 독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하셨다. 앞서 말했듯이 분단의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독일문화원은 독일도서관계와 한국도서관계 간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원장님과의 아쉬운 자리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도서관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2006서울WLIC에 대한 기대

바바라 리허터 관장은 우선 올 8월 서울에서 열리는 WLIC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WLIC를 계기로 독일도서관 사서들도 한국을 방문할 것이고 이에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한국사람들에게 독일의 참 모습을 전해주고 싶다는, 독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강한 의욕을 느낄 수 있었다.

독일문화원도서관의 이모저모

우선 독일문화원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로 했다. 주한독일문화원은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건물은 1978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설립배경은 1958년 독일과 한국간 외교관계 성립에 따라 독일문화를 한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도서관은 문화원 설립 당시부터 있었다고 한다.



〈독일문화원도서관의 다양한 장서들〉

독일문화원도서관의 장서는 2006년 3월 현재 11,000여종(도서 및 AV 자료 포함)이다. 독일 문화나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2005년에는 약 500명의 신규회원이 생겼으며, 하루 30~50명, 월 평균 420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대출은 하루에 30건 정도, 연 5,730건 정도이며, 이 외에도 질문건수도 연 1,200건으로 상당히 많다고 한다.

독일문화원도서관의 **중점테마**는 독일문화와 독일어, 아동 및 청소년문학, 현대독일문학, 독일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의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 이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도서관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 운영은 최신 주요 정보들을 포함한 독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독일월드컵(월드컵을 소개하는 작은 팸플릿을 발행해 배포하고 있다), 최근 유럽을 흔들고 있는 이슬람권과의 캐리커처 논쟁, 제5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올

해의 각종 기념일(모차르트, 브레히트, 벤펜, 하이네, 한나 아렌트 등), 라이프치히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문학상 및 도서상 수상작 및 독일 출판계의 신간안내 자료를 도서관 입구에서 전시하고 있었다.



〈도서상 수상작 및 신간안내자료 전시〉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는 열람시간을 종전 주 25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늘려, 월요일에는 10~12시까지, 화~금요일은 13~19시까지, 토요일은 10~16시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대출 및 독서카페 운영, 영화상영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테마는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읽기 쉬운 초보자용 독일어 교본, 독일 고전문학, 독일의 도시 및 지역사정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2006년 독일월드컵과 현재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독일 현대 미술의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작년에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고 한다.

독일문화원도서관의 특별한 점은 독일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다. 소장 도서들은 대부분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서나 영어로 된 도서도 적지만 소장되어 있다. 독일어를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위한 “자율학습센터(Self-Learning Center)”가 현재 도서관 내에 설치 준비 중이다.

2006년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독서카페를 연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보다 친근하게 독일의 현



〈도서관 내부 모습〉

대문학과 젊은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부 독일어로 진행되는 데,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여쭙자 아무래도 의사소통이라고 말씀하신다. 한국 도서관 대부분의 홈페이지와 간행물들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의 도서관 사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또한 목록 입력에 있어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표준 준거가 확실하지 않아 자료 정리와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리히터 도서관장은 향후 독일문화원도서관의 계획에 대해 현대식 정보센터로서의 전환을 위해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 협회는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상호간 동반자로서 성숙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일 과정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라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상호 고전(古典)의 교류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남북한 간 문화적인 교류 과정에서 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8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WLIC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인내를 가지고 성심껏 계속 접촉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

작지만 알찬 도서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독일문화원 도서관은 문화원 내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매우 안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관광과 사서는 도서관을 의욕적인 곳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독일에 관한 수준있는 장서와 전문사서와 독일 문화 전문가들의 충실하고도 친절함 서비스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북한에 평양괴테정보센터를 세우고 인민대학습당과 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3일에서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한국 책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독일문화원도서관,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관과는 물론 남북한 도서관계의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독일문화원도서관은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인같은 도서관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도서관들과도 독일문화원(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도서관과 사서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 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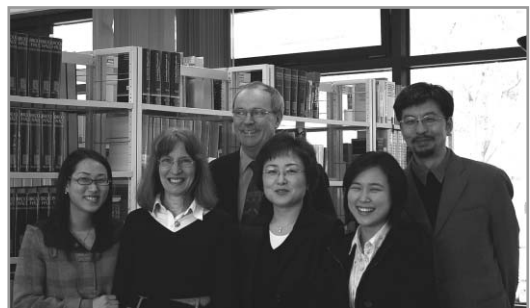
독일은 현재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학술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격차가 적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독일문화원도서관 방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독일의 도서관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이 배워야 할 점을 더 많이 본 것 같다.



〈독일문화원 웹사이트〉

현재 독일문화원 웹사이트(www.goethe.de/seoul)에는 사서를 위한 서비스, 독일도서관 포털사이트 등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제공되고 있다. 우리 도서관들은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적고, 있어도 주로 영어로 제공되는 것에 비하면 독일문화원의 노력과 정성이 어떠한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 독일문화원 방문을 통해 독일은 자국의 도서관 홍보 및 문화 홍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2006서울WLIC를 계기로 우리의 도서관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같은 과업 수행에 있어 우리 협회의 역할도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글 : 심효정, 사진 : 최인경)



〈도서관에서의 단체사진(맨 왼쪽부터 필자, 바바라 리히터 도서관장, 유르겐 키일 독일문화원장, 이인구 사서, 최인경, 이용훈 기획부장)〉

4월에는 송곡여고도서관을 찾아갑니다.